

2023. 12. 25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특별시 서북병원

진료부 의료지원과 진료기획팀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진료부장	심재천	02-3156-3200
의료지원과장	서재룡	02-3156-3201
진료기획팀장	김상호	02-3156-3238
담당자	이혜림	02-3156-3237
공식 누리집	https://www.seoul.go.kr/	

서울 서북병원-국립암센터, 호스피스·완화의료 진료 협력 '맞손'

- 12.19.(화) 국립암센터 회의실서 「서북병원-국립암센터 상호 업무협력」 업무협약 체결
- ▲환자 진료, 임상 교육 위한 인적·기술적 협력 ▲진료 의뢰 환자 편의 제공 및 의학 정보 교환 등 협력
- 내년 1월부터는 호스피스 병동 현재 19병상→39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
- 서북병원, “양질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생애 말기돌봄 서비스 환경 개선 기대”

서울 서북병원(원장 이창규)이 국립암센터(원장 서흥관)와 함께 호스피스·완화의료¹⁾ 진료 협력에 나선다.

- 호스피스·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의 통증 및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, 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·사회적·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료서비스다.

서울 서북병원(원장 이창규)은 지난 19일(화) 국립암센터 회의실에서 「서북병원-국립암센터 상호 업무협력」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- 국립암센터는 2001년 개원 이래 호스피스 전담 부서 운영 및 보건복지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호스피스·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

1) 『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6호 : “호스피스·완화의료”란 다음 각 목(암, 후천성면역결핍증 등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, 심리사회적,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.

고,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의해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되어 우리나라 호스피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.

-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▲환자 진료와 임상 교육을 위한 인적 및 기술적 협력 ▲임상 및 기초 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 협력 ▲진료 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의학 정보 교환 ▲각종 학술행사 및 교육 참여 기회 제공 ▲호스피스·완화의료 대상 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를 위한 상호 의뢰, 전원 등 연계 진료 협력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다.

- 또한, 서북병원은 국립암센터와 호스피스 외래 및 입원 진료 협력 연계 방안, 병동 등 호스피스 시설 이용에 대해 논의와 함께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호스피스·완화의료 서비스 확대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.

- 한편, 서북병원은 지난 2005년 12월 호스피스·완화의료 병동 6병상을 시작으로 말기 암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. 내년 1월부터는 현재 호스피스 병동 19병상에서 39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.
 - 서북병원에서는 가족의 간병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(간병인) 제도(1일 간병비 본인 부담액: 약 5천원) 운영과 함께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통증 및 신체 증상관리, 요법프로그램(원예, 미술, 음악), 임종 관리, 영적 돌봄 서비스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.

- 이창규 서울 서북병원장은 “생애 말기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립암센터와의 호스피스·완화의료 협력을 통해 호스피스·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, 말기돌봄을 원하는 환자들이 불편 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. 업무협약식 사진 1부.

